

이대병원, 亞 최초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연구소’ 개소

임신 중 음주, 흡연 위험성 연구 여성·아동 위한 건강한 삶 추구 “태아의 건강·생명수호 선도”

이대목동병원이 아시아 처음으로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연구소’를 열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은 임신부가 임신 중 음주를 해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는 선천성 증후군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성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중독) 환자는 2018년 1만7000여 명으로 연평균 1.6%포인트 늘어났다. 여성 알코올중독 환자가 증가하면서 태아알코올증후군에 대한 위험도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19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 경영진과 김영주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회장 등 연구소 설립 후원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연구소’는 임신부의 음주, 흡연, 약물 중독의 유해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과 아동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

소식에 맞춰 연구소에서는 앤 스트라이스구스 박사가 1997년 발간한 연구 서적 ‘태아알코올증후군: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한 가이드’를 번역 출판했다. 앤 스트라이스구스 박사는 미국 워싱턴대

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분야 교수로서 1970년대 태아알코올증후군 병명을 처음 만들고 연구를 시작한 연구자다.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코올의 중독성을 이기기 쉽지 않지만, 태아알코올증후군 위험성이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그래도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위험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미국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63만 명 신생아에게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임신 중 술을 마신 여성 13명 중 1명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고, 태아알코올증후군 환자의 평균 사망 나이는 34세라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이처럼 임신한 여성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태아의 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아기에게 다

양한 안면기형, 정신지체,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최근 국립보건연구원 동물 실험 결과, 임신 전 음주는 태아 발달 저하 및 거대아 출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고위험 음주 산모의 경우 거대아 출산 위험이 2.5배 증가했다.

김영주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임신한 여성의 태아가 알코올, 담배 등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금주, 금연을 지켜야 한다”며 “태아 건강과 생명 수호를 선도하는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바에피스, ‘SB11’ 美 판매허가 심사 착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9월 제출한 BLA 사전 검토 완료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역량 입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 SB11(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판매허가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난 9월 제출한 SB11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서(BLA)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완료됐으며, 본격적인 서류 심사에 착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SB11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와 노바티스가 판매 중인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안과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이다. 루센티스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은 약 4조60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11의 판매허가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여,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비대면으로 개최된 미국 안과학회(AAO)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SB11의 글로벌 임상3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따르면, 총 705명의 습성(신생혈관성) 연

령유관 황반변성(nAMD)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52주 데이터 분석을 통해 SB11과 오리지널 의약품 간의 임상적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렌플렉시스(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와 항암제 온트루잔트(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트라스투주맙)를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에티코보(엔브렐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판매허가를 획득했으며, SB8(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해 11월부터 판매허가 심사 중에 있다.

SB11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선 보이는 여섯 번째 바이오시밀러로서, 올해 10월 유럽에 이어 11월 미국에서 연달아 판매허가 심사가 개시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호텔업계 3분기 적자 감소... 예약 문의 ↑

연말 특수 등 4분기 실적 반등 기대

주요호텔들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기간(7월~9월)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호텔롯데의 호텔사업부는 3분기 매출 1215억 원, 영업손실 90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수치다. 다만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약 40%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의 폭도 줄었다.

또한 호텔신라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795억으로, 이전분기 5230억에 비해 68%가량 증가했으며 영업손실도 198억원이라 2분기인 634억에 비해 손실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지난 1분기부터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폭을 점차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호텔도 역시 3분기에 영업적

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2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 파라다이스는 3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3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한 바 있다.

18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어진 적자 지속에도 3분기 실적에 이어 4분기 영업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6월 들어서면서부터 상반기에 비해 호텔 예약 문의율이 늘었다”면서 “이는 예약 직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호텔 측이 적자폭을 줄인 데 대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과 연말 연차 소진 시기, 제주 및 지역 지점 선호 현상 등을 꼽았다. 실제로 9월 이후로 호텔 뷔페 등 식음시설 영업이 재개되며 따라 연회와 호캉스 수요가 높아지며 2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됐다. 연말을 맞아 모처럼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 등 호텔 이용 ‘특수’로 인해 또 한번 섣달이 재현되지만 않는다면 객실 점유율은 서서히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스타벅스,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 오픈

향후 배달 서비스 시행 여부 검토

스타벅스가 배달을 시작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11월 27일 스타벅스역삼이마트점을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으로 오픈하며, 향후 배달 서비스 시행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

스타벅스역삼이마트점은 고객 체류 및 주문 제품 직접 픽업이 가능했던 기존 스타벅스 매장과는 다르게 배달만 가능한 딜리버리 시범 매장으로 운영된다. 약 30평 규모의 매장에는 별도의 고객 체류 공간 없이 오직 라이더 전용 출입문, 라이더 대기 공간과 음료 제조 및 푸드, MD 등의 보관 공간만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매장 바리스타들은 방문고객의 직접적인 응대 없이 주문 제품 제조 및 포장에만 집중하며 품질 관리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범 오픈을 앞두고 배달 주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및 신속한 배달 서비스에 전념할 예정이다.

주문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매장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반경 약 1.5km 내에 위치한 곳이라면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 배달 주소 입력 시 배달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배달 가능 지역에 위치한 경우 주문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위메프 다이어리·캘린더 기획전

30개 브랜드 최대 15% 할인

위메프가 얼리버드족을 위한 2021년 다이어리&캘린더 기획전을 연다.

위메프는 ‘미리 준비하는 나의 2021 이야기’ 행사를 열고 다이어리, 캘린더 관련 용품들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상품은 다이어리, 캘린더, 플래너, 가계부를 총망라한다. 필기구, 마스크 테이프, 데코스티커 등 인기 다꾸템(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도 엄선했다. 몰스킨, 양지, 카카오프렌즈, 라이브워크, 비온뒤 등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1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은 ▲카카오프렌즈 캘린더 ▲리훈 다이어리 ▲아르디움 다이어리 &캘린더 ▲몰스킨 다이어리 ▲꽃길여담 다이어리 등이다.

/원은미 기자

재료부터 냉장고까지... 김장특집 행사

롯데홈쇼핑 30일까지 ‘김장대축제’

롯데홈쇼핑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기본 재료부터 김치냉장고까지 판매하는 김장 특집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 간편한 김장’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절임배추, 김치양념 등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치를 사먹는 ‘김포족(김장 포기족)’도 증가해 올해 10월 롯데홈쇼핑의 포장 김치 주문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0% 늘었다. 또한 김치냉장고가 김치는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세컨드 냉장고’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이달 들어 김



치냉장고 누적 주문 금액은 50억원을 돌파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달 30일까지 ‘위니아답채’와 ‘김장대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딤채 김치냉장고’를 최대 7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 ‘식품관’에서는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한번에 가능한 ‘김장대진’이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비롯해 김장매트, 믹서기, 밀폐용기 등 김장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총망라해 판매한다.

/원은미 기자